2024년 3월 10일 사순 제 4주일 (4th Sunday of Lent)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18 (골고타 언덕)	513 (면병과 포도주)	176 (믿음 소망 사랑)	282 (의로운 성요셉)

제 1독서 | 2역대기 36,14-16.19-23

화답송 |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좌)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우)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우)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 2독서 | 에퍼소서 2,4-10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3,14-21

영성체 후 묵상 |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이는 예수님을 멀리하지만,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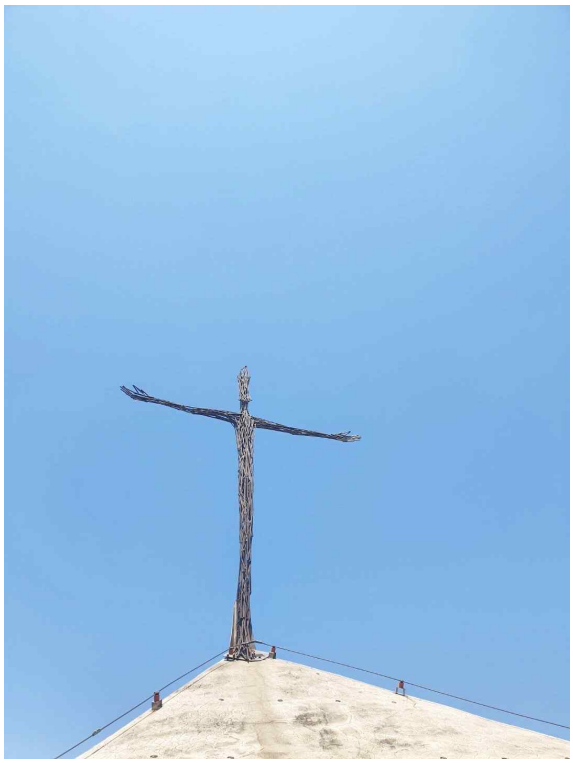
오늘의 복음, <요한 3,14-21>

Jesus said to Nicodemus: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desert,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Yes,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be lost but may have eternal life. For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not to condemn the world, but so that through him the world might be saved. No one who believes in him will be condemned; but whoever refuses to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refused to believe in the name of God's only Son. On these grounds is sentence pronounced: that though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men have shown they prefer darkness to the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And indeed, everybody who does wrong hates the light and avoids it, for fear his actions should be exposed; but the man who lives by the truth comes out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plainly seen that what he does is done in God.'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Short Reflection>

Today's gospel says that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not to condemn the world'. There was and is much to condemn in the world. The crucifixion of Jesus, the continued slaughter of the innocents, is a witness to the power of sin in the world. Yet, Jesus did not come among us just to condemn what was wrong in us.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to reveal a love that was more powerful than sin or evil, so that we could all be raised up by this love.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to release a power of love that would enable us to become the people God desires us to be, what the second reading refers to as 'God's work of art, created in Christ Jesus to live the good life'. If we allow ourselves to be touched by God's love given to us in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e will begin to live fully human lives and we will enter into eternal life.



가톨릭 교리 -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2)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간의 철학으로 다 풀 수 없습니다. 유다인들이 십자가를 향해 던졌던 돌직구처럼, ‘하느님이시라면 적어도 이러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40).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느님의 힘”(1코린 1,18)이고 “하느님의 지혜”(1코린 1,24)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5).

도미니코 성인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수많은 신학책에서보다 십자가라는 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하자면 끊임없이 바라보고 읽고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라는 말씀’(1코린 1,18 참조)이 천국의 키워드입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더 깊은 차원

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에 연루된 이들,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과정, 사형 선고의 근거, 십자가형의 과정 등,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는 책 하나를 쓰고도 남을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내재한 더 깊은 차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닌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599-623항 참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죄에 넘겨주신 하느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빚어내는 구원의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주간에 수난복음을 봉독하면서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된 유다 지도층, 제자들, 백성들, 로마 권력, 그리고 신문과 처형의 역사적 과정을 드라마의 장면들처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과연 어느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하느님 섭리의 손길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서 고백하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차원을, “저희를 위하여”는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말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

나자렛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판가름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2000여 년 전 팔레스티나에서 짧은 생애를 산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선포합니다. 곧 나자렛 예수님의 전 생애와 죽음이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을 위한 절대적 구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어 몸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분께서 분열과 부조리로 얼룩진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낮추시어 거기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하느님 단절이라는 죽음의 깊은 심연 속으로 뛰어내리시어 그 자리를 하느님 쪽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낮춤과 헌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심’이 예수님의 전 생애의 존재방식이고 행동방식입니다. 이는 그분의 강생에서 시작되고 십자가 죽음에서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분의 전 생애를 관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무이한 중개자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전주교구 김혁태 베드로 신부>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고해성사 순서 안내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옆에 적혀있는 소공동체반 순서대로 성사를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공동체반 이후에 성사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신자 분들 누구나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3월 10일(주일) - 마르코반
* 3월 17일(주일) - 루카반
* 3월 24일(주일) - 요한반

2. 고해성사에 관한 궁금점

Q. 신부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만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할 수는 없을까요?

고해성사는 홀로 잘못했음을 선언하고 빠져나가는 일방적인 창구가 아니며, 용서를 '청하고' 동시에 '받으며' 하느님과 화해하는 과정이지요. 한마디로, 고해성사야말로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청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더듬거리는 말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직접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격적' 만남이 사랑 안에서는 항상 면밀히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여 고백하고 그분과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직접 나아가 그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해성사 집전자인 사제는 인간을 향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고해 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당신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사제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주교나 교황에게 위임을 받아 고해성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2월 25일	유아·청소년: 15명	성인: 33명
3월 3일	유아·청소년: 32명	성인: 64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3월 10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3월 17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3월 10일)	루카반
다음주 (3월 17일)	마르코반

| 우리들의 정성 | (3월 2일 ~ 3월 8일)

봉 헌 금	$437.2			
교 무 금	$660			
김요한	방진선	김정수	김천주	손재호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전인철	주정자	황병욱	

|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